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한 시론 I

A Review on the Evaluation of Home Economics in Changing Korean Society :
An Attempt for Constructing a New Paradigm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주거학과
교수 유영주
강사 강완숙

Department of Housing, Child and Family Studies Kyung-Hee Univ.
Professor Yoo, Young-Ju
Lecturer Kang, Wan-Sook

〈목 차〉

- I. 회고와 정리: 반성적 고찰의 필요성
 - II.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정학의 발전
 - III. 가정학이 극복해야 할 문제들
 - IV. 가정학적 관점의 회복과 심화를 위한 제언
- 참고문헌

〈Abstract〉

These days, Home Economics in Korea is confronted with the inner argument about its identity and the outer pressure of re-organization caused by educational reformation. Fundamentally, these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to Home Economics arise from that Home Economics has not been fulfilling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due to weakening of integrate perspective, insufficient practice and conservative tendency of study.

To get over the current problems and construct a new paradigm of Home Economics contributing to the requirements of new era, the following prerequisites might be fulfilled;

- ① More active concern about surmounting the alienation that threatening the modern family life and self-actualization of individuals.
- ② An endeavor to find a new family philosophy and patterns of family culture as the basis of community restoration that harmonize the traditions with changes.
- ③ An Effort to find a higher values that contribute to symbiosis and development of global community including all human beings, creatures and eco-system on the earth.

1. 회고와 정리: 반성적 고찰의 필요성

초창기 가정학의 선구자들이 가정학을 '인간과 가족, 이를 둘러싼 환경, 인간과 가족 및 환경과의 관계를 통합적·실천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 이래, 가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최근까지도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서 가정학의 정체성에 대한 새삼스러운 논의와 가정학적 관점의 재정정의 또는 재확립이 요구되는가. 그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논의의 직접적 촉발제로서 학문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다(이은영, 1995: 19-30).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학부제가 확대되면서 현재 가정대학에 속한 개별 학문분야가 다른 학문분야의 학과나 교과목에 통합, 흡수될지도 모르는 해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가정학 외부에서는 개설 교과목의 중복을 피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학과를 통합하는 것이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유용하다는 전제하에 가정대학과 기타 대학의 관련분야를 가정대학의 해체를 통하여 통합하려는 시각이 있는 듯하다. 가정대학 내의 전문화된 개별영역들 - 의류, 식품영양, 주거, 아동, 가족, 소비자, 가정관리학 - 과 다른 대학의 유사학과가 굳이 나뉘어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학적 관점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피상적 견해 또는 가정학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등장하게 된 이면에는 그 동안 가정학이 발전해 온 과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둘째, 학문 내적요인으로서 그동안 협의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정학 연구의 내용을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고, 또한 가정학의 사회적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문인의 양성 혹은 전문영역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분야별 전문화와 분화의 과정을 걸어 온 것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정생활에 관련된 기초 학문의 연구를 종합하여 궁극적으로 가정생활의 향상 및 개인의 발달에 기여해야 한다는 통합적·실천적 학문으로서의 가정학의 핵심적 목표(core goal), 또는 정체성이 희

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가정학의 전문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분화와 전문화 과정이 오히려 다른 학문분야와의 차별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유영주, 1994).

그런데 가정학의 독특성 또는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학문 내·외적 도전은 세째,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학의 효용성과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숙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당초에 가정학이 천명했던 실천적 지향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가정학에서 행해진 여러 연구가 과연 개별 가족 또는 가정의 입장에서 생활향상과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는가. 또한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국가정책과 기업활동에 가정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하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적 통합과 인간적 가치의 실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과 발달을 위해 가정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가정학적 관점이 필수불가결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가정학은 실천학문으로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뚜렷한 가치지향적 관점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학의 학문으로서의 고유성과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이는 가정학의 가치지향적 관점에 타학문과 구별되는 차별성이나 독특성이 없거나 아니면 개인적·사회적 요구에 가정학이 부응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먼저 가치지향적 특성을 보면, 모든 학문의 궁극적 목표는 인류의 복지를 지향하므로 개인의 발달과 가정생활의 향상이라는 가정학의 목표는 독특한 특성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타분야에서의 세분화되고 단편적인 연구는 구체적인 생활의 장과 필요에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통합의 토대가 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정의 복지를 지향한다는 분명한 주체적 입장에서 인문, 자연, 사회, 예술 등 각 분야의 연구를 선택, 통합, 검증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가정학적 가치 추구의 관점은 다른 분야의 목표와 뚜렷이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생활세계의 변화에 가정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그 안에서 생활하는 가정과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의 복지에 기여하며 한편으로는 국가 정책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되고 참여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가정학의 발전과정 및 가정학의 당면 문제를 짚어 보고, 이의 극복을 통해 앞으로의 가정학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본 전제를 추출하고자 한다.

II.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가정학의 발전

한국의 경우, 여성교육으로 부터 시작된 가정학은 여성이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요리, 재봉, 수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과에서 부터 시작하여 생활의 과학화 및 생활 개선의 내용으로 바뀌었고,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는 가정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여 가정학의 연구 대상은 가족생활, 특히 의, 식, 주생활 분야와 가족자원 관리, 소비자 기능,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등으로 강화되어 왔다(유영주, 1991).

1. 한국 사회의 변화와 그 결과들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산업화가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이러한 산업화의 결과는, 계층적·지역적 편차는 있겠으나 대체로 ①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소득 수준의 상승 ②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의 구조적 분화 ③ 전통적·집단주의적 가치에서 근대적·개인주의적 가치 추구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겠다(한국사회과학 연구협의회 편, 1986; 사회과학연구소 편, 1990; 고영복 편, 1991; 임희섭 외, 1993;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1995).

이러한 변화는 빠른 시간 안에 절대 빈곤 수준에서의 탈피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그 대신 분배과정의

왜곡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증가시켜 계층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급속히 도시화된 생활환경은 공동체적 기반을 파괴하여 우리가 경제적 풍요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했던 궁극적 삶의 가치를 오히려 왜곡 또는 상실하게 만들었다.

현대 산업사회가 목표로 하는 '대량 생산'의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의 것만을 추구하는 서구사회의 가치관과 선진 과학기술은 기술 실업, 산업 공해, 자원 위기, 소비주의와 같은 폐단을 초래하였고, 인간성이 경시되는 물질위주의 사회를 가져온 것이다(Schumacher, 1976). 결국 경제적 성장과 도구적 합리성의 추구는 물질적 풍요를 가능하게는 했으나 이것이 곧 인간 생활의 전반적 복지로 이어지기 보다는 생활 세계 전반의 관료화와 비인간화, 개인의 무력감과 냉소주의를 초래하여 의미 상실의 극단적 아노미와 소외현상을 야기시켰다(D. Bell, 1990; M.Orrù, 1987, 1990; F. Pappenheim, 1969, 1992).

그리하여 대중은 소비적 자아를 추구함으로써 실존적 공허를 해소하려 하나 산업화된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 체제에서는 소비조차도 더 이상 자율적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는 사물에 의해 지배받으며, 그 결과 자율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한 사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Baudrillard, 1986, 1993).

이처럼 그 동안 한국사회는 유례없는 물질적 성장과 풍요를 이룩했으면서도, 바로 그 때문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여러가지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니엘 벨(Daniel Bell, 1990)은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① 필요하다면 자기의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시킬 수 있는 초월적 연대감을 기르고 ② 자원의 유한성과 욕구(need)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무제한한 욕망 대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③ 모든 사람에게 정의의 감각과 사회에의 귀속의식을 부여하는 공정(公正)의 개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응 방안은 진정한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장기반으로서 또한 사회통합의 기초로서 가정생활의 향상을 지향하는 가정

학의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가정학의 새로운 관점에 반영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가정생활의 변화와 가정학의 연구 동향

1960년대 이후 근대화와 기술의 발전, 독점 기업 및 테크노크라트의 성장 등에 의해 급격히 이루어진 사회경제적 변동은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면서 가정생활에도 큰 변화가 야기되었다.

1) 가정생활의 변화상

가족구조면에서는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핵가족, 노인 가족, 독신 가족이 증가하였다. 가족 내의 상호작용에서는 구성원간의 정서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부부간,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수직적 관계에서 평등지향적 수평관계로 전환되었으며, 기타 친족 관계는 범위가 축소되고 유대도 약화되었다.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반면, 가족관계를 지지하는 물적 토대와 친족관계가 약화되면서 가족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가족해체도 늘고 있다(유영주 외, 1994).

가정 관리 및 소비 생활 면에서는 먼저 가사노동이 기계화되고 가정 기능의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출현하였으나 이것이 곧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또 기혼여성의 꾸준한 취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절대량은 여전히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문숙재 외, 1993). 한편 소득 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소비지출 구조가 변하였으며, 대량 소비사회의 어두운 면으로서 왜곡된 소비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의·식·주 생활면에서는 식민지배와 뒤를 이은 장기간의 대규모 전쟁, 서구화 위주의 근대화의 진행으로 문화적 전통의 단절이라 할만큼 급격한 변화가 야기되었다.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보다 풍부한 자원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획일적으로 상품화된 의류, 식품, 주택의 수동적 소비에 머문 측면도 있다.

앞으로 가족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가정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개인적 가치와 공평성의 추구를 지향

하며, 동시에 사회가 분화될수록 인간의 심리적 안전기로서, 또한 사회통합의 토대로서 가정의 기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관리와 소비, 의·식·주 생활면에서 이제까지의 산업화 진행과정에서는 가정생활의 영역이 가정에서 사회로 이전되는 추세였다면, 가정과 일터가 통합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다시 가정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Toffler, 1989; 유가효, 1995) 개별가족의 요구와 필요가 증시되며, 또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중요한 지적 자산으로서 보존하고 응용하려는 경향도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2) 가정학의 연구경향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가정학은 나름대로 개인과 가정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이인희 외, 1991; 조복희, 1991).

1960년대의 가정학은 주로 자연과학적 측면의 원리를 연구, 적용하여 생활의 과학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변천하는 가정 윤리와 가족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 생활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고유 문화의 사적 연구에도 착수하였다. 60년대 전반에는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연구 활동이 미비하였으나 60년대 후반에는 가정대학이 설립되고 가정학과와 가정교육과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가정관리학과, 아동학과, 주생활학과 등으로 분화되면서 각 영역의 내용이 심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가정학의 전문성을 정립하는데 주력하였으며 각 대학에 대학원 과정이 설립되어 연구가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그간 자연과학적 측면에 치중하여 온 가정학 연구에 인간발달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과학과의 연계성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주정일, 1971; 안현민, 1973; 유희경 외, 1975).

1980년대에는 '인간 생태학과 가정학'이라는 주제로 현대 사회와 과학 기술 속에서의 가정학의 영역 및 명칭, 가정학 전공자의 사회진출이 심도있게 논의되었고 각 분야의 전문적 연구도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였다(문숙재, 1980; 이은영, 1983; 이기열, 1987; 이기영, 1989; 이연숙, 1989). 1990년에 들어서도

각 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함께 가정학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새로운 시대 변화와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김숙희, 1990; 서병숙, 1991; 홍형우, 1993).

이처럼 가정학은 각 전문영역에서 많은 연구 업적을 축적해왔으나 한편으로는 연구 영역이 세분화되고 연구방법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현실생활과 괴리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서구의 연구 분석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연구 결과의 해석 또한 심층적 규명까지 이르지 못하고 통계적 검증에 의한 단순한 사실의 나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독특한 현상을 규명하고 독자적 이론을 구축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홍두승, 1984; 유가호, 1995).

또한 연구의 양에 비하여 그 결과가 사회에 알려지는 경우가 드물고, 가정학자들이 가정학 분야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를 일반에게 알리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데에도 소극적이어서 가정학의 사회적 기여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결국 가정학 각 전문영역에서의 연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가정학의 연구는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를 통합적, 실천적으로 규명하지 못함으로써 가족의 요구와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또한 가족생활의 향상을 위해 능동적 입장에서 환경을 다루기 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을 주로 환경의 종속변수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과 가족을 단순히 환경에 순응시키는 적용적 가치와 도구적 합리성의 추구에 치중하여 주체적인 문제의 인식과 능동적 대처에는 미흡하였다고 보여진다.

Ⅲ. 가정학이 극복해야 할 문제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정학이 극복해야 할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영역의 세분화 및 전문화와 통합적 시각의 약화

최근 가정학 각 분야의 연구는 영역을 지나치게

세분화, 전문화함으로써(김항아 외, 1995) 현실의 복합적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운 단편적 지식을 생산하여 현실세계와 유리된 면이 있다. 일부에서는 가정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영역의 전문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면 결국 타학문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연구결과는 현실의 가정생활에 적용되기 어렵다. 가정학의 전문성은 전문지식의 추구와 함께 어떠한 입장과 목적에서 문제에 접근하느냐에 의해 확보되고 강화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기초과학적 연구가 활발할수록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가 대두되고, 이러한 경향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확산되는 추세이다(조선일보, 1996. 3. 29). 가정학 역시 기초과학의 연구성과를 가정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종합하고 재해석하는 통합적, 학제적 연구의 입장을 확고히 할 때 고유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실천과학으로서의 위상정립의 문제

가정학은 발달 초기부터 가정생활 향상을 위한 실천적 성격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실천'의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인회는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문수재 등은 생활의 수단으로 표현되는 기능과 기술을 확고한 학문적 이론에 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김항아 외, 1995), 조복희(1995)는 기초과학의 원리를 현실생활의 향상을 위해 구체화하고 실용화하는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견해들은 실천의 여러 차원을 반영하는데, 이에 더하여 가정학의 실천적 성격은 1) 연구에 있어서 가치추구적, 비판적 관점의 적용 2) 연구결과와 사회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보다 뚜렷하게 규명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연구에 있어서의 가치추구적, 비판적 관점의 적용은 다양한 가족의 요구를 섬세하게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가정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비판적 관점에서, 즉 그러한 지식이 과연 누구의 무

엇을 위한 것인가를 따져서 종합 검토함으로써, 궁극적인 인간 목표에 비추어 특정 수단을 평가하도록 하는 가치 지향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결과와 사회화는 가정학의 연구결과가 일반 가정 및 국가와 기업에 전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학은 내·외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에 직면하는 일반가정에 적절한 정보와 조언, 교육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여러 정책과 기업활동에 그러한 연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가정학의 보수성

가정학 외부에서는 가정학을 매우 보수적인 학문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부인할 수 만도 없는 일면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가정학의 연구가 은연중에 평균적 가족 또는 표준적 가정생활을 상정하고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고 그리하여 연구의 초점은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정에 맞추어져 왔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현실적용을 강조함으로써 더 나은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상유지에 치우쳐 왔으며, 따라서 문제 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보수적 연구 경향은 개인과 가족의 복지를 통합적·실천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정학 본래의 학문적 목표에 충실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전통적 가족구조, 비표준적 문제영역으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며(조복희, 1991), 농촌가족, 저소득층 가족, 문제가족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박혜인, 1988). 또한 문제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가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략적 관점도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에 의해 복지적 차원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지식과 정보는 다시 정책적 대안으로 구체화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의 가정에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가정학적 관점의 회복과 심화를 위한 제언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개인에게나 사회에게나 점점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때 가족 또는 가정은 새로운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소멸될 것이라거나 또는 소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 또는 가정은 그 자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적응하고 변화하며, 계속해서 가족구성원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생명유지체계(life support system)라는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적영역으로 치부되어 위축되고 평가절하되었던 가정생활은, 정보화시대에는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어서 미래사회는 가정중심의 사회가 되리라고 예측되기도 한다(Toffler, 1989; 유영수, 1995).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UN은 1994년을 “가정의 해(Year of the Family)”로 선포하고 세계의 사회 경제적 발전 및 평화의 유지는 각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가족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으며, 1995년 개최된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그 실천강령으로서 한국 주도로 “사회통합과 가족의 책임” 조항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산업화된 대량 소비사회에서 수동적 객체로 전락한 인간을 해방하고 진정한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하며, 방향을 잃은 맹목적 과학 기술의 적용과 과소비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통합적, 실천적 관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원래 가정학이 초기부터 일관되게 추구해온 학문적 목표에 다름아니다.

다만 현재의 가정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 또는 정보화사회로의 급격

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즉 인간중심적 차원에서의 인간생활 개선을 위한 방법적, 기능적 연구라는 협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환경변화와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생태학적 관점을 보다 심화·확대하고, 도구적 가치 추구에 치우친 서구 합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정학의 새로운 관점과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몇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리라고 생각되며,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가정생활과 진정한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협하는 소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한국사회의 문화적 단절과 이념적 단절을 극복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전통과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가정철학과 가정문화¹⁾의 모형들을 제시해야 한다.

3)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생태계를 포함하는 지구공동체의 공생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가치 개념을 모색해야 한다.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상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본래의 통합적·실천적 성격을 심화, 확대하는 한편, 변화지향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고영복 편(1991), 현대사회론, 사회문화연구소.
- 2) 김숙희(1990), 사회변천에 따른 가정학의 영역, 제 43차 가정학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3) 김항아, 유태명(1995), 우리나라 가정학의 당면 문

제점과 그 역사적, 철학적 배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18.

- 4) 모수미 외(1992), 가정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5) 문수재(1980), 인간생태학과 가정학, 대한가정학회지 18, 5-45.
- 6) 문수재, 이기열(1984), 한국가정학의 미래 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3), 181-198.
- 7) 문수재 외(1993), 가정학의 새로운 접근, 수학사, 498-539.
- 8) 박혜인(1988), 산업화와 가족생활: 가족연구의 실천적 지평을 위한 일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6(4), 204-211.
- 9) 사회과학연구소 편(1990), 가치의식의 변화와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 10) 서병숙(1991), 가정학과 윤리,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7-33.
- 11) 서정희 외(1993), 가정학원론, 하우.
- 12) 안현민(1973), 가정학의 전문성과 영역, 대한가정학회지 11 (4), 438-455.
- 13)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1995), 가족과 한국사회, 경문사.
- 14) 유가효(1995), 교육개혁과 가정학의 미래,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1-41.
- 15) 유영주(1991), 가정관리학의 특성화 과제, 대학교육, 대학교육협의회.
- 16) ——(1994), 가정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언,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17) ——(1995),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가정과 가정학의 역할,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소.
- 18) ——(1995), 가정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 19) ——(1995), 가정학의 당면과제와 전망, 중앙대 가정문화연구소 연구발표회 자료집.
- 20) 유영주, 이정연(1994), 가정학원론, 신광출판사.
- 21) 유희경, 박일화, 이경수 외(1975), 가정학의 검토

1) 가정문화란 가정에서 행해지는 물질적, 정신적, 제도적, 관행적인 여러 생활 요소와 양식으로서,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조건과 개별가정의 특성이 어우러져 형성된다. (이인희 외, 1991: 58).

- 와 미래의 방향제시를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3 (2), 93-142.
- 22) 이기열(1987), 가정학 본질의 재조명, 대한가정학회지 27 (4), 197-220.
- 23) 이기영(1989), 가정학의 사회적 기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창립 20주년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24) 이연숙(1989), 가정학의 이미지 개선과 가정관리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대한가정학회지 27 (4).
- 25) 이은영(1995), 교육개혁과 가정학:도전인가 기회인가,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9-30.
- 26) 이은영(1983), 가정학 전공자의 사회진출 :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가정학회지 21 (4), 167-172.
- 27) 주정일(1971), 대학에 있어서의 가정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 대한가정학회지 9 (1), 499-579.
- 28)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편(1986), 한국사회의 변화와 문제, 법문사.
- 29) 홍두승(1984), 가정학연구의 방법론적 과제, 제 37차 대한가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30) 홍형옥(1993), 인간·환경·생활연구를 위한 시론, 제 6차 한·일 가정학 심포지움 자료집, 67-75.
- 31) 이인희, 윤서석, 장정옥(1991), 가정학원론, 수학사, 139-153.
- 32) 임희섭, 박길성 편(1993),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 33) 조복희(1991), 가정학 연구방법론, 1994, 교문사, 18-19
- 34) 장명옥(1981), 가정학원론, 교문사.
- 35) 조선일보(1996.3.29), '통합학문 늘어간다', 24.
- 36) Baudrillard, J. (1986),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소비의 사회, 이상률역, 문예출판사, 1993.
- 37) Bell, D. (1990), The Cultural Constructions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김진욱 역, 문학세계사.
- 38) Orrù, M. (1987), Anomie: History and Meaning, 아노미의 사회학, 임희섭 역, 나남.
- 39) Pappenheim, F. (1969), The Alienation of Modern Man, 현대인과 소외, 진덕규역, 학문과 사상사, 1992.
- 40) Toffler, A (1987), 제3의 물결, 이계행역, 한국경제신문사, 1989.